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10 | MAY 2023



南鍾三
오한
聖人
2023년 5월
경도주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5월호 / 통권 310호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10 | MAY 2023

렌즈로 보는 세상	4
함께 읽는 성경	6 성경 묵상
교회의 가르침	12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6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20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4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8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0 웰 다잉 (주님 안에서 희망 찾기)
듣다 읽다 보다	32 고전 음악을 듣다 38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42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8 정석의 이 도시 52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직장사목팀 소식	58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THE COVER

성 남종삼 요한

그린이: 정도윤 엘리야(<http://artist-jdw.com>)



“5월의 향기로운 장미안에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성모님께 충만한 사랑과 평온한 삶을 간구해 봅니다.”

/
윤정민 마틸다

성경 묵상

허영엽 마티아 신부_서울대교구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1. 한 주간의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가능하면 암송합니다.
2. 영성 일기장을 준비하여 매일 조금이라도 묵상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1주간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부활은 그리스나 유대교의 사상들과는 구별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측면에서 죽음 이후의 삶으로 이해했지만,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사도 17,32 참조). 유대인들은 육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죽은 육신이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리스도교의 부활은 이러한 사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과 영혼이 예전대로 살아나는 소생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였고 그 체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오늘날 물질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를 깨달아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영원한 삶을 미리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 25-2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간의 말씀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네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 내 말은 그것을 찾아 얻는 이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에 활력이 되어 준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잠언 4,20-23)

○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 살아야 할까요?

“말하기 전에 백번 생각하라.”라는 유럽 속담이 있습니다. 격한 감정에 흘러버린 말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공든 탑을 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교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축복이나 저주



를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말도 에너지이므로 보존 법칙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잠언은 이어서 “거짓된 말을 치워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멀리하여라. 눈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눈길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잠언 24-25)”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과 삶의 길을 연장선상에서 보며, 생활에서 끼치는 영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험담이나 비난은 절대 하지 않고 칭찬과 위로의 말만 해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3주간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 영성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란 하느님과과의 만남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신앙은 그 뜻 자체로 믿고 따르는 것, 즉 일상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절대적으로 관계 중심입니다. 인간 상호적인 생활이란 공동체의 생활, 동료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영성도 하느님과 만남

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신앙적 열성을 갖고 사는 모든 경우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목표는 하느님이지만, 인간 상호적인 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한다고 봅니다.

과연 나의 삶에서 다른 이들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 다가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4주간의 말씀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공동번역, 갈라 5,19-21)

○ 인생의 실패는 어디에서 옵니까?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5장에 나오는 성령과 육정의 열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악령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저서인 「악마는 존재한다」가 종교 서적이지만 대형서점의 중앙 매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1세기에 무슨 악마 타령인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를 의미하는 ‘devil’이라는 영어단어는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인데, ‘디아’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디아블로’는 ‘돌로 나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귀는 분열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성인들의 삶도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천사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당신을 시험했던 마귀와 싸우셨고, 당신의 삶에서 유혹과 박해도 겪으셨습니다. “사탄의 은밀한 간계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는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악마로부터의 보호를 하느님께 겸손되이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며 간청해야 합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3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홈페이지 접수 (<http://seoulcpc.catholic.or.kr/>)

1. "가톨릭 영성을 통한 가톨릭 믿음과 신앙 활동의 다양한 문화"

최대환 신부(대신학교 지성양성담당, 의정부교구) / 교구청 501호,
매주 월 19:00-21:00, 정원 80명

- 5/15 불안의 시대 : 예술과 문학에 비친 현대 세계
- 5/22 제롬티우스의 꿈 : 성 존 헨리 뉴먼의 문화 영성
- 5/29 고독의 기술 : 함께함을 위한 홀로 있음

2.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법"

윤제연 크리스티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가톨릭회관 205-3호,
매주 수 19:30-21:00, 정원 80명

- 5/10 스트레스 속에서 오늘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지키기
- 5/17 우울: 오늘의 삶이 짐처럼 무거울 때
- 5/24 불면: 오늘도 평안한 밤의 휴식을
- 5/31 불안: 앞날의 불확실함이 버거울 때

3. 마음 수련을 위한 그림일기

김현정 소화데레사 작가 / 장소 추후 공지, 매주 목 19:30-21:00, 정원 15명
(준비물: A4사이즈 스케치북, 4B연필, 태블릿pc)

- 5/4 과정: 기억에 의지하여 그리기 vs 눈에 보이는대로 그리기
- 5/11 빛: 외곽선 안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 5/18 비례: 선으로 그리는 인물
- 5/25 주제 탐구: 그림 강조하는 법

4. 미술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치유할 수 있을까?

신혜영 프란체스카 박사 (마리아센터 대표) / 교구청별관 112호, 매주 수 19:00-21:00,
정원 10명

- 5/3 미술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 5/10 미술을 통한 기억과 감정의 표현
- 5/17 미술을 통한 나의 이해
- 5/24 나의 정원 만들기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고해성사(2),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9)



왕태연 요셉 신부_ 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과의 일치와 친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 없고, 그 회복을 위한 간절함 또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1450항은,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의 행위가 필요하다. 마음에는 통회가, 입에는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며, 고해성사를 위한 몸과 마음의 자세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양심성찰”과 “통회”입니다. 양심성찰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자신이 죄로 인해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깨닫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 ‘참회의 시작점’에조차 서지 못한다면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회개의 여

정’은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통회에 대해서는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1451항에서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 하느님에게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면 이제 하느님에게로 되돌아갈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의 단계를 “정개(定改)”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결심을 되새기는 매우 책임감 있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기로 한 굳은 결심이야말로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큰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고백”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기도 하고, 사제 역시 별다른 것이 없는 인간인데도 어떻게 다른 이들의 죄의 내용을 듣고, ‘하느님의 용서’를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 혹은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사실 고해성사의 집전자인 사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466항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고해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 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에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의 교도권에 충실해야 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치유와 완전한 성숙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는 고백자를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 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죄를 듣는 것은 특별한 권한이나 권리라기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아

파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고 회개의 길에 동행하며 신자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도록 이끄는 복된 명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이유는 하느님께서 전하는 용서의 은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멍에인 이유는 죄인으로서 겪는 인간적인 후회와 아픔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라는 말씀으로 말기신 그 열쇠의 권한은 스스로 용서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사제의 사죄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전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이며, 이를 전해 듣는 신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길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해성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제가 고해성사를 청하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보속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1459항은 보속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갚음을 보속(補贖)이라고 부릅니다.” 보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받는 고통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속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며,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해성사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끊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의 굳건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치와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 38~39) ☩



CORNERSTONE



Lovre version
Leonardo da Vinci (1483-1486)
Oil on Panel, 199cm x122cm



London version
Leonardo da Vinci & others (1495-1508)
Oil on Panel, 189.5cm x120cm

암굴의 성모 (Virgin of the Rock, 이탈리아어: Vergine delle rocce)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성이다. 프라임 버전으로 여기는 버전은 복원되지 않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복원된 다른 하나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높이가 거의 2미터이며, 둘 다 원래 나무 패널에 그려졌지만, 루브르 버전은 캔버스로 옮겨졌다.

루브르 버전은 런던 버전보다 약 8cm 더 크고, 레오나르도의 "스푸마토" 기술의 완벽한 예로 여겨진다.

런던 버전은 원래 레오나르도의 조수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2008년과 2010년 사이의 최근 복원 기간 동안 그림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인해 작품의 대부분은 레오나르도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밀라노의 '순결한 잉태 형제회'는 1483년 산 프란체스코 그란데 성당의 예배당에 올릴 3폭 제단화를 주문한다. 1483년 4월 25일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암브로지오, 에반젤리스타 데 프레디스 형제와 계약을 맺는다.

교회측은 레오나르도에게 예언자들에게 에워싸인 동정녀를 그리라고 했지만 그는 예언적 표징과 상징적 요소들로 대신했다. 성경에 기록된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 반대이다. 왼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한 요한을 오른쪽 예수가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배경의 바위 속 갈라진 틈으로 흐르는 물은 정결의식 세례를 암시한다.

바위 위에 식물을 묘사한 것은 전통 상징주의를 따른 것이다. 배경의 담쟁이덩굴은 충성과 지속을 의미하고 화면 앞의 종려와 붓꽃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로부터 슬픔과 죽음의 꽃으로 알려진 아네모네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예고해준다.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⑦

공동선과 ‘재화의 보편 의도의 원리’, 가톨릭교회 사회교리-모두를 위하여, 내 것과 네 것, 또 모두의 것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1.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조차 매우 낯설고 심지어 불편할 수도 있는 지상의 모든 ‘재화의 보편 목적(의도)’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땅(지구)’은 누구 것일까요? 극단적이지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 한 지역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무력 충돌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과 분야가 있겠으나, 전 세계 곳곳 수많은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회와 자연을 파괴합니다. 신체적으로 약한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이 군인들보다 더 많이 죽고 다칩니다. 두 장면이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전쟁 초기 시민의 피난 장면과 최근 징집을 피해 이웃 나라로 떠나는 차량 행렬 장면이 그것들입니다. 이 두 장면은 모두 ‘살기 위해’ 자기들이 머물던 ‘땅’을 떠나야 하는 많은 ‘피난민’의 처절함을 보여줍니다. 이때 국경은 그들에게 생사(生死)의 갈림길이 됩니다. 특정 집단의 소유를 나타내는 땅의 그 경계가 그토록 많은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에게 ‘땅(지구)’은 누구 것일까요? 창세기 1,1~2,4(천지창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보시고 다섯 차례나 “좋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분께서는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땅”과 “생물”을 돌보라고 맡기시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물들에게도 그 땅의 결실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마침내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내용을 확신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느님께서 세상의 주인(주님)이십니다. 둘째,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잘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셋째,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그 땅의 결실을 사람들과 생물의 삶(생계)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하느님께서 땅과 그 땅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 국민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의도하셔서, 창조된 모든 것이 카리타스(사랑)로 누그러뜨려진 정의의 지도를 받아 **모든 인류에 의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셨다**”(「간추린 사회교리」, 171항; 「기쁨과 희망」, 69항 재인용).

이를 사회교리는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는 **공동선의 일반적 의미**에 있어 직접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지상의 모든 재화’는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의 품위 있는 삶(생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하느님의 원래 의도’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누구도 배제하거나 편애하지 않으시고, 전(全) 인류 모든 구성원의 생계(생존)를 위해 이 땅(지구)을 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 120항; 118-119항 참조).

2. 재화 사용의 보편적 권리(공동 사용권)와 사적 재화의 사회적 목적

앞에서 ‘재화의 보편 목적(의도)의 원리’(하느님의 원래 의도)는 그리스도인에게조차 매우

낯설고 심지어 불편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원리에서 도출된 ‘재화를 사용할 공동의 권리’를 생각하면 그 불편함은 더해집니다. 이론적으로 이 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재화의 사적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재화는 모든 사람의 품위 있는 삶(생계)을 위한 것이라는 ‘재화의 보편 목적의 원리’는, 사람 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재화를 사용할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구성하는 물질 재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권리를 두고 “그리스도교 사회교리의 특색을 이루는 원리”로서 “전체 윤리적 사회적 질서의 제1의 원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자연권이고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으며, 변천하는 역사적 상황과 결부된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생득(천부)의 권리**”인 이 권리는 “재화에 관한 어떤 인간적 개입이든, 어떤 법적 체계든, 어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체계나 방식들이든 다 그것에 우선합니다.” 이 우선성에 따라, “**재산권과 자유로운 매매의 권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재화에 관한] 권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 규범에 종속되어야 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171-172항 참조). 이 재화 사용의 보편적 권리(공동 사용권), 사적 재화의 사회적 목

적에 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가 존엄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우리의 부(富)를 가난한 이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그들의 부를 강탈하여, 그들의 생계를 빼앗는다는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재산은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대)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그 기본적 필수품을 마련해줄 때, 이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모든 형제」, 119항)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적(私的) 재화의 권리가 절대적이며 불가침(不可侵)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형태의 사적 재화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 인간들의 온전한 완성에 필수적인 재화들과 관련이 있는 다른 모든 권리는, 사적 재화의 권리든 다른 어떤 형태의 재화의 권리든 절대로 이 공동 사용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권리의 행사를 활발하게 도와야 합니다.”(「모든 형제」, 120항)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면, 교회는 ‘비록 그것이 당신 소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온전한 완성에 필수적인 재화라면, 당신 마음대로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식량,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통신과 교통수단, 에너지 같은 재화들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3. 사회적 약자 최우선 원리 - 하느님의 소환장

교회는 ‘인간의 온전한 삶의 완성에 필수적인 재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사용의 권리가 있으며, 또 모든 형태의 사적 재화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다고 가르칩니다(지난 호). 실제 대부분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원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가 이 원리에 관한 성찰과 대화와 신앙생활에의 적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은 본당에서 자기 사제들과 긴밀히 일치하여 ...,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하여야”(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도직 활동」, 10항)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합니다. 교통수단이 오늘날 도시의 공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

통수단은 도시인에게 ‘온전한 삶의 완성에 필수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대개 혼자 이용할 수단과 여럿이 이용할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혼자 이용할 수단을 갖추면 품위 있는 삶이 완성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와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가용이 사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서 만큼은 사회적 맥락(도로와 주차장)에 부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적 재화의 사용이 다 그렇습니다. 내 소유물이 될 때까지의 과정, 소유하고 이용하는 동안의 조건, 처분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적 재화도 ‘사회’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바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를 사적 재화의 사회적 목적이라 합니다.

여럿이 함께 이용할 교통수단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도로 건설과 주차장 설치는 물론 비행장 건설과 철도 부설, 그에 따른 자원 충당, 그 교통수단의 이용조건(요금) 따위를 고려하여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여럿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품위 있는 삶의 조건 곧 ‘공동선’의 실현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수단의 마련과 이용조건을 누구

의 조건에 맞춰야 할까’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사회적 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공동생활’의 우선 조건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이용 요금을 부과하거나,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를 설치하면 할수록 문명의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사회는 불가피하게 ‘다수’의 의견과 편의를 기준으로 삼으며,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작은 이’를 참된 문명의 척도로 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체적 장애를 지녔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마태 25:40 참조).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길을 함께 걸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장애인이나 경제적 약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면서 문제 해결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동반)하지 않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선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집단과 국제관계에서 언제나 약자는 있게 마련이지만, 그리스도 신앙인에게는 그들이 바로 ‘하느님의 소환장’입니다.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명도회장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 복자(4)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정약종 복자가 남긴 『주교요지』 상편에는 천주교 4대 교리 가운데 천주존재, 삼위일체, 상선벌악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강생구속, 곧 구원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편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 이 구원론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요 대목들을 인용해 가며 되새겨 봅시다.

1. “천주 옛새 만에 천지 만물을 내시니라 : 천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로부터 천지를 내시고, 또한 무수한 천신(天神)을 내시니, 그 천신의 성품이 다 착하고 형상이 없어 신묘하고 정통한지라. …”

『주교요지』 하편은 창조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무로부터의 창조”와 첫 번째 피조물이 “천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6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정약종은 이 6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와 거의 유사하게 전하면서, 동시에 천사 중에 루치펠 천사가

교만으로 인하여 마귀가 되었고 미카엘 대천사와 대치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2. “세상이 본디 좋더니, 사람의 처음 조상이 천주께 득죄(得罪)하매, 종던 세상이 괴로워지고, 착하던 사람이 그릇되었나니라.”

하편의 두 번째 대목은 원죄론을 전합니다. 아담과 에와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 한 후, 마귀의 꼬임으로 에와가 선악과(善惡果)를 먹고 아담에게 주는 원죄론을 전해줍니다. 정약종은 원죄가 후손에게 미치는 이유를 당시의 조선사회 배경 안에서 이해하도록 설명해줍니다.

“죄악의 경하고 중함이 죄지은 곳이 높고 낮은 데 달렸으니, 말하자면 백성이 원(員=수령)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형벌이 태장(笞杖)을 받을 것이요, 감사(監司=관찰사)에게 지었으면 형추(刑推)를 당할 것이요, 임금께 지었으면 죽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죄는 한 가지라도 죄 지은 곳이 더욱 높을수록 그 형벌이 더욱 중한지라. … 사람의 조상이 임금

께 득죄하였으면 그 자손이 대대로 변방에 충군(充軍=군역)하고 위노(爲奴=노비가 됨)하는 법이 있으니, 원조의 벌이 그 자손까지 연루함을 어찌 마땅치 않다 하리오?” 나라에서도 임금에게 죄를 지으면 본인은 물론 자손까지 노비가 되는 벌을 받는데, 천주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후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3. “천주 강생하여 사람이 되시어, 온 세상 사람의 죄를 구(救)하시고 속(贖)하시니라.” 세 번째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과 기적, 수난과 십자가 죽음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40여일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순서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발현 순서와 대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 성녀 막달레나 - 여러 성녀 - 수종도(首宗徒) 베드로 - 길 가던 두 제자 - 열 종도(宗徒) - 열 한 종도와 토마 사도 - 종도 일곱 명 - 열 한 종도

- 한 종도 - 봉교(奉敎)하는 오백 인 - 승천 정약종은 성경과 교회의 전승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순서를 모두 12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에는 네 가지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기지은(四奇之恩)을 설명합니다. 즉 무상손(無傷損=상하지 않음), 광명(光明=빛이 남), 신속(迅速=빠름), 사무침(투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주어지는 이 네가지 은혜가 부활 메시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연연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피정을 잘하고 나면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얼굴에 빛이 나아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로, 그리고 갈릴래아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다니십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시간에 구애됨 없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닙니다. 부활은 죽음마저 넘어가는 것, 아무리 단단한 돌과 쇠라도 투과되고 단단히 굳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뚫어 냅니다. 마지막 사무침의 은혜, 그것은 모든 장애를 뛰어 넘는 투과성을 가리킵니다.

주교요지 하편에는 공심판 후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이 몸이 무수한 천신과 무수한 성인과 한가지로 예수를 모시고 천당에 올라가, 무궁한 복락을 받아, 눈으로는 항상 좋은 모양을 보고, 귀로는 항상 기묘한 풍류(風流)를 듣고, 입으로는 항상 아름다운 맛을 먹고, 코로는 항상 기이한 향내를 맡으니, 온 세상에 복이 되고 즐거운 일을 모두 합하여 한 사람의 몸에 누려도 천당 복락의 만분지일도 당치 못하는지라. 오히려 육신의 복인 고로 형용하여 말하거니와, 영혼의 복락은 또한 육신보다 한량없이 더 좋으니, 어찌 말로 형용하여 알게 하리오?”

천국에서 천주와 직접 마주 대하는 지복직관(至福直觀)은 지상의 복락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정약종과 당시의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용덕(勇德)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참된 천주요, 참된 인간임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사람의 죄가 온전히 사(赦)해졌다고 전합니다. 뒷부분에서 천주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점들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천주가 어찌하여 우리나라에 나리지 아니하시고 서국(西國)에 나리시며, 또 천주교의 교법(教法)이 이제야 우리나라에 왔느냐?”

“천주 한 곳에 나리시면 그 교법이 가히 천하에 두루 행할 것이요, 또 서국 유대야 지방에 나리심은 오직 이 나라 사람이 예로부터 천주 섬기기를 일삼아, 천주의 백성이 되는지라. 천주가 친히 십계(十誡)도 주시고 구세주를 허락하시어 매양 선지자(先知者)를 보내어 구속(救贖)하실 연유를 미리 알게 하신 연고이니라.”

즉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우리가 스스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교요지』 하편은 천주교를 들으면 즉시 믿고 실행하라는 권고로 마무리 됩니다.

“이제 천주교의 말씀을 들으니, 마땅히 믿어 행할 일이로되, 천천히 내년부터 시작하면 어떠하뇨?”하고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

이 대답합니다.

“그른 일을 버리고 옳은 노릇하기를, 어찌 지금은 못하고 내년을 기다리리오? 자식이 부모를 섬기려 함에, 어찌 오늘은 못하고 내일부터 하겠노라 하리오? ... 비유컨대 독 속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어, 한 번 푸고, 두 번 푸고, 천만 번을 퍼 내면, 필경 그 독의 물이 없어질 것이요, ... 독의 물이 마른 것을 보고, 어찌 맨 나중 바가지가 그 물을 없이 하였다 하리오? ... 사람이 세상에 살며 한 날이 지나면 무덤에 한 날이 가깝고, 한 해가 지나면 무덤에 한 해가 가까우니, 날마다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어찌 내년을 기다리며 공부 시작을 아니하리오? ... 너도 오늘부터 시작하고 미루며 핑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주교요지』 하편에는 이른바 강생구속, 즉 구원론을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풀이하면서 부활과 전교의 의무까지도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하여 상편, 하편에는 천주교의 4대 교리 이외에 중요한 이론적 교리가 완전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1801년 이전에 완성되어 필사본으로 전해지던 『주교요지』는 서양 선교사들이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읽혀지고 활자본으로도 간행되었습니다. 『요리문답』과 함께 신자들에게 교리를 알려주는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한글 교리서가 한국천주교회의 초창기부터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교리서의 작자는 바로 명도회장이었던 순교복자 정약종 아우 구스티노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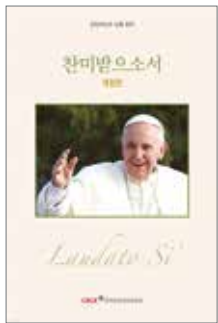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묵상

우리는 부활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까? 황일광 베드로처럼 두 개의 천국(지상에서 양반들이 점잖게 대해주니 지상의 천국이 있고,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고 하니 나에게도 두 개의 천국이 있다)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대화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 혼자 결정하고 구성원들은 결정된 사항을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갈등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어렵겠지요.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문제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소통과 대화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 제5장은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위한 접근법과 행동 양식으로 다양한 차원의 ‘대화’를 강조합니다. 물론 대화만으로 생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 연결되어있는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회칙은 국제적 차원의 대화를 강조하는데, 이번 달에는 회칙이 제시하는 또 다른 “대화의 길”(163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

회칙은 생태 환경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대화가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하듯이,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투명한 정치적 과정”(182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요. 만일 대화와 의사 결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는 형태의 부패는 반복될 것입니다. “부당한 압력과 관료적 타성”(181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정된 정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회칙은 특히 ‘환경 영향 평가’가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 “학제적 방식으로 투명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되어야”(183항)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와 토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의사 결정부터 지속적인 감시 활동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논의가 있겠지만, “특정한 필요나 이념이 공동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솔직하고 투명한 토론”(188항)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대화

오늘날 막강한 힘을 가진 경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이윤 극대화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틀 안에는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거나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대해 성찰할 자리가 없습니다. 회칙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가 효율 중심의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 종속되지 않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결여된 경제는 현재 위기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논리를 지지하지 못할 것이기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196항). 다시 말해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지 않고 대화를 통해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치와 경제의 목적은 모두 “인간의 삶에 봉사”(189항)하는 데 있고, 그래서 마땅히 생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와 경제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경제적 수

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한쪽은 권력의 유지나 확대에만 집착”(198항)한 채 빈곤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지구 공동체 문제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비판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치와 경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상호 작용의 방법을 찾기를”(198항) 바라십니다. 건강한 정치와 윤리적인 경제가 대화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전 모델

회칙은 정치와 경제의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넘어 “새로운 발전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194항)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입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공식화되었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는 이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이 용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외적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수사에 불과하고 성장과 개발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역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논의는 흔히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수단”(194항)이 되고 만다고 지적하시지요. 사실 유한한 행성인 지구에서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 합리적 한계를 설정”(193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타협책으로 자연 보호와 경제적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속해야 할 것은 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속하려면 “발전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94항). 2020년 주교회의 환경의 날 담화문 제목처럼, “성장 신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대화

오늘날 생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지금 우리가 직면해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첨단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생명, 모든 피조물의 상호 작용과 실재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199항). 과학의 제한적인 틀 안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미적 감각이나 세계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는 성찰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회칙은 과학이 다른 영역, 특히 종교와의 대화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종교적 언어로 표현되는 윤리적 원칙들과 오랜 전통에서 표현되는 영적 지혜는 생태적 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요한 것들입니다. 종교 역시 생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과학으로부터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위한 도움을 받거나 인간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과 종교는 상호 대립이 아니라 상호 대화를 통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과학과 종교가 각자의 고유한 현실 접근 방식으로 서로에게 생산적인 진지한 대화를 이어간다면, 공동의 집 지구의 미래는 좀 더 희망적일 것입니다.

회칙은 제5장을 마무리하면서 종교인들 사이의 대화, 학문들 사이의 대화, 생태 운동들 사이의 대화도 함께 요청합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획기적인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각자 저마다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다른 길도 존중하며 서로를 통해 생태적 전환을 위한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마다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진 이 현실에서 대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절제와 관용을 필요로 하는 대화의 길”(201항)로 나아갈 때, 지속 가능한 세상을 향한 문도 열리지 않을까요?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안티모

St. Anthimus (축일: 5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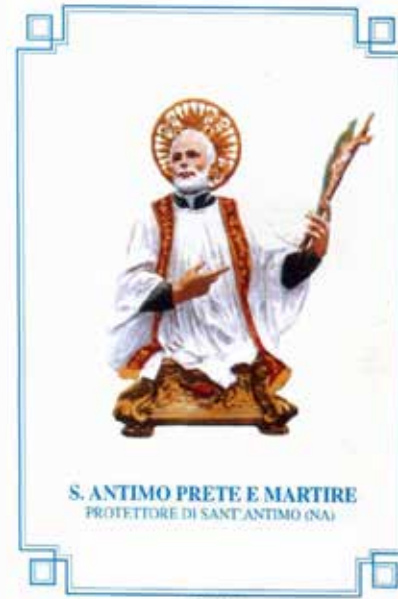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체취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로 땀냄새이며, 겨드랑이의 액취, 입냄새인 구취, 발냄새, 머리카락 냄새, 살냄음 등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체취이기에 자신은 잘 모르며, 타인에게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바로 상당히 체취가 독한편의 동물이라고 합니다만, 유독 한국인들은 전세계에서 독특한 유전자 형질을 보유한 덕에 체취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전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서는 체취가 나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되었고, 인공적인 방향제로 온갖 악취를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향기일까요? 꽃들 가운데 향기가 강한 꽃들로로는 장미, 프리지아, 수국 등이 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이런 종류의 꽃들이 단 몇 송이들만 있어도 전체 공간을 가득 채울 정도로 향이 짙습

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꽃들로 수천수만 송이를 채우고도 그 이상의 짙고 강렬한 향기가 아닐까요? 게다가 그 ‘향기’는 꽃의 본성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어린양, 당신 본성인 자비와 용서의 짙은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당신 본성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 닳은 제자들, 아버지 하느님의 자녀들일수록 그 향기가 엄청나게 짙게 배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향기가 엄청나게 짙게 피어오르지 않을까, 나도 그 향기를 내는 한 송이의 꽃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소 생소하지만 주위에 종종 있는 세례명인 안티모(Anthimus)라는 이름이 바로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로마 박해시절의 사제이셨던 순교자 안티모 성인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려고 이교도들을 개종시키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체포되어 티베르(Tiber) 강에 던져지는 형을 받았으나,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결국 다시 체포되어 참수를 당하고 순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으로 가신 순교 사제이십니다. 그렇기에 순종의 향기가, 십자가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도 짙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그분의 이름의 어원을 알면 이런 저의 고찰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성인의 이름은 안티무스, 혹은 안티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는 라틴어 안티무스(Anthimus)에서 파생되었고, 이 안티무스는 다시 그리스어 안토스(ἄνθος; anthos)를 라틴어 알파벳으로 음역(音譯)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그 뜻이 “flower, blossom”이고, 이는 곧, “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안토스라는 그리스어는 “꽃”이란 명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며,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세례명들, 곧 ‘안토니오’, ‘안티모’ 등은 모두 이 “꽃”이라는 안토스를 뿌리로 삼는 이름입니다. 모두가 향기를 품고 있어서 그 향기를 발산해야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기로, 더욱더 강렬한 향기로 뿜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한다면, 이 안토스 계열의 세례명들은 얼마나 그 사명을 본질로 알아들어야 하겠습니까?

향기는 분명 생각과 말과 행위로 퍼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은 말씀을 기반으로, 생각은 주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기반으로, 행위는 닳아갈수록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된다는 점을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는 피로와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이스터 에카르트 사제가 이야기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허리케인 속으로, 사랑의 친밀한 통교 속으로 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

웰 다잉 (주님 안에서 희망 찾기)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정년이 되어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중반의 프란치스코는 얼마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말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치료를 안 받으면 1년 안에 죽는다는 의사의 소견도 들었다. 한편 요즘은 약이 좋아 항암치료가 잘 되니 치료하자는 권유를 받았고, 치료 중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귀가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밤에 잠을 청하는데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외동딸은 작년에 시집보냈으니 책임은 다했고, 남긴 재산과 연금이 있으니 남은 아내도 노후생활에 문제는 없을테고... 단지 혼자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긴 하나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10년, 20년 빨리 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가? 죽으면 예수님이 마중 나오실거고..., 괜히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 빠지고 토하고 밥도 못 먹고..., 주변에 민폐나 끼치고 고생하느니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요양하며 즐겁게 살다가 순리대로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5년 전 선배가 폐암에 걸린 후 치료를 거부하고 생활하다 2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한 일을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는 내일 아내에게 자기 결심을 얘기하려 한다.



Question

내가 프란치스코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공동번역)을 읽어주십시오.

“하느님께서서 더 좋은 희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산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

에 이른다.” 어떤 의미에서 육체의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죄가 주는 품삯”(로마 6,23)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006항]

죽음은 지상 생활의 마침이다.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계산되며,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변하고 늙어가므로, 지상의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생명의 정상적인 끝마침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죽음은 우리의 삶에 긴박감을 준다. 죽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삶을 실현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한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 먼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코헬 12,1.7)

[가톨릭교회 교리서 1007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드보르작 (2) - 첼로협주곡: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드보르작의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인 정육점을 하면서 여관도 겸업을 하였고, 살 아남은 8명의 자녀 중 장남인 안토닌 드보르작에게 가업을 잇도록 강요하였지만, 음악에 전혀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비록 클래식 악기는 아니지만, 대중적인 전통악기인 '치타(zither)'를 수준급으로 연주할 수 있었다. 2차대전 직후의 황폐한 오스트리아 빈을 무대로 한 오손 웰스의 1949년 영화 '제3의 사나이'의 주제가가 바로 그 치타로 연주된다. 원래 빈을 대표하는 음악은 왈츠이지만, 감독은 전쟁의 상처가 짙게 남은 빈을 표현하기 위해 왈츠 대신 싸구려 술집에서 연주되던 치타를 주제가로 선택하였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그 치타연주도 공전의 히트를 치게되었다.

드보르작의 어머니 안나(Anna, née Zdeňková)는 음악에는 문외한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롱코비츠(Lobkowitz) 공작의 영지 관리인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롱코비츠 공작은 베토벤의 열렬한 후원자로 베토벤의 3번

교향곡 '영웅'이 그의 집에서 비공식적으로 초연되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 드보르작의 음악적 소양은 어려서부터 천재라 불릴만큼 특출났다. 드보르작의 아버지는 독일어권 지역이었던 고향에서 아들이 정육점 가업을 잇는데 유리하도록 독일어를 일찍 13세부터 배우게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독일어 선생님 리만(Liehmann)이 음악가였다. 드보르작은 리만 선생님 이전에도 이미 1847년 6세에 들어간 마을 학교에서 합창지휘자 요셉 스피츠(Joseph Spitz)로부터 성악과 바이올린을 배웠고, 리만은 바로 드보르작의 재능을 간파하였다. 이미 드보르작은 이웃 마을의 무도회까지 초빙되어 노래도 부르고, 지역의 여러 교회에 초대되어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다. 동네에 소문난 음악천재는 이렇게 계속 음악과 엮여졌고, 리만을 만나 그 재능은 더욱 꽃피우게 되었다. 반면에 아버지의 가업 정육점은 넬라호제베스(Nelahozeves)의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결국 그 타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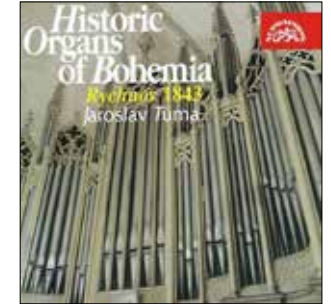
으로 이웃 마을 질로니체(Zlonice)로 이주하여 새 정육점과 여관을 시작하였다. 다행이었던지 드보르작은 아버지를 따라 이사하면서 음악 애호가였던 삼촌 안토닌 즈데네크(Antonín Zdeněk)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새로이 다니게 된 교회의 합창지휘자 요제프 톨만(Joseph Toman)으로부터 피아노와 함께 대위법과 같은 고도의 음악이론도 배우게 되었다. 아들이 가업을 잇기를 바라며 고집을 피우던 아버지는 삼촌과 선생님들의 설득으로 드디어 1857년(16세) 아들이 '프라하 오르간 학교(Prague Organ School)'에 입학하는 것을 찬성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드보르작은 1859년 오르간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면서 드디어 최초로 대중 연주회를 열어 바흐의 오르간 음악 이외에도 자신이 작곡한 '프렐루드 D장조'와 '푸가 G단조'(생전에는 출판되지 않고 후에 프렐루드 6곡과 푸가 2곡을 묶어서 1980년 B.302로 출판됨)를 선보였다. 이러한 그의 천재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열악한 음악시장에서 음악가로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었고, 레스토랑과 무도회의 작은 악단들을 전전하면서 겨우 연명할 정도였다. 그러나 20대의 가난한 청년 드보르작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추기 시작하였다. 체코의 영원이 담긴 프라하 국립극장이 1844년부터 구상되기 시작하였지만 체코의 국력저하로 지지부진하다가 비록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1862년 일단 개관되었다(후에 1881년에야 겨우 완공된다). 드보르작은 1865년 극장 관현악단의 비올라 주자로 취직되었다. 이제 고정적인 일자리를 처음으로 얻은 드보르작이었지만, 급료는 생활비에도 모자라 동료 5명과 함께 방을 같이 쓰며 월세를 절약하면서 개인 렛슨을 해야 했었다. 드보르작은 프라하 국립극장의 젊은 여배우 요세피나 체르마코바(Josefina Čermáková)에게도 피아노 레슨을 하였는데, 운명처럼 요세피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인기있던 체코의 시인 플레가-모프라스의 시를 가사로 한 총 18곡의 연가곡 '사이프러스(Cypresses,

Historic Organs of Bohemia, Rychnov 1843
Jaroslav Tuma (soloist)

Dvořák, Antonín (1841-1904)
Mendelssohn, Felix (1809-47)
Release Date: 10th Mar 1999
Catalogue No: SU3403-2
Label: Supraphon
Length: 68 minutes





Dvořák: Stabat Mater, Op. 58
 Eri Nakamura (soprano), Elisabeth Kulman (contralto), Michael Spyres (tenor), Jongmin Park (bass)
 Czech Philharmonic Orchestra, Prague Philharmonic Choir, Jiří Bělohlávek

Release Date: 5th May 2017
 Catalogue No: 4831510
 Label: Decca
 Length: 82 minutes

체코어: Cypřiše, B.11, 1865)'(후에 현악4중주로도 편곡됨)을 요제피나에게 바쳐서 애절한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오스트리아 귀족인 카우니츠(Kaunitz) 백작과 결혼해 버렸고, 그는 절망하였다. 요제피나의 집에서 피아노 레슨을 하였기에 자매들과도 잘 알고 지냈던 드보르작은, 8년 후 1873년(31세) 요제피나의 동생인 안나(Anna)와 결혼을 하였다. 드보르작과 안나는 열세 살 차이로 그들이 결혼할 때 안나는 이미 드보르작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알토 가수로서 드보르작의 가곡을 초연하기도 한 안나는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도 드보르작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내였다. 브람스는 안나에 대해 "내 친구 가운데 저런 훌륭한 부인을 가진 녀석은 아무도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다. 드보르작은 요제피나의 남편 카우니츠 백작의 추천으로 프라하에서 50km가량 떨어진 시골 마을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며 요제피나의 가족들과도 자주 어울려 매형인 카우니츠 백작과도 친구 이상

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서로의 집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하였다. 작은 음악회에서는 그의 '네 개의 가곡(4 Lieder Op.82)'을 아내 안나나 처형 요제피나가 노래하였다. 그중 제1곡 '나를 혼자 내버려 주세요(Lasst Mich Allein<Leave Me Alone>, 체코어: Kéz duch můj sám, 1888)'는 요제피나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다.

안나와의 결혼 직후 1875년부터 1877년까지 연속해서 3자녀를 잃고 슬픔 속에 완성한 '스타바트 마테르(성모애가)'는 역설적으로 드보르작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다. 당시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던 미국은 부호들이 대규모 연주회장을 짓고 미국의 클래식 음악을 육성하려고 앞다투어 유럽의 음악가를 초빙하던 시기였다. 1892년 드보르작은 당시 미국의 클래식 음악의 부흥을 위해 신설된 뉴욕 국립음악원의 원장으로 초빙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당시 미국에는 아직 '미국 음악'이라 할 만한 전통이 없었다. 조지 거슈인



Dvořák: 'American' Quartet, 8 Waltzes
 Talich Quartet

Release Date: 14th Oct 2022
 Catalogue No: LDV101
 Label: La Dolce Volta
 Length: 62 minutes

이나 아론 코플랜드 같은 미국 작곡가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다. 드보르작을 초빙한 것은 미국 클래식 음악의 시조가 되어 달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로였다. 미국의 대부호 자네트 서버(Jeanette Thurber)는 드보르작에게 기꺼워 연봉 1만 5천 달러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드보르작이 프라하 음악원에서 받는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그가 미국에 도착한 1892년 9월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밟은지 만 400년이 되는 해였다. 그의 환영 행사에는 '두 개의 신세계 - 콜럼버스의 신세계가 음악의 신세계를 만나다'란 플래카드가 걸렸다. 드보르작은 미국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미국 음악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흑인영가'를 채용하여 미국 음악적 색채가 강한 그의 명작 3부작 교향곡 9번, 현악사중주 12번, 첼로협주곡을 내놓는데, 이는 드보르작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1893년 12월 15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초연된 교향곡 9번 e단조 Op.95 '신세계로부터'는 미국 생활 첫 1년이 낳은 결실이었다. 잉글리시 호

른이 연주하는 2악장 '라르고'는 유명한 '꿈속에 그리는 내 고향'이라는 가사를 붙여 우리에게 귀에 익숙하다. 초연 때는 이 선율이 너무 아름답고 애절해서 손수건으로 눈물로 닦는 부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드보르작은 흑인영가를 단순히 '차용'한 것을 넘어서 이 선율에 고향 체코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노래했고, 그럼으로써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감동을 창조한 것이었다. 그의 현악사중주 12번 F장조 Op.96 '아메리카'는 1893년, 미국 아이오와의 체코인 정착촌 스피븐에서 보름 동안 여름휴가를 보낼 때 작곡했다. 이 곡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미국 원주민들의 선율에 담은 작품으로, 표현과 구성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특히 2악장 '웬토'(느리게)는 흑인영가의 선율이 애절하게 흐르는 감동적인 대목이다. 중간 부분에는 체코 민요도 펼쳐지는데, 미국에 머물면서도 늘 고향을 그리워했던 드보르작의 마음을 엿보게 한다. 그 다음 해 1894년 11월부터 드보르작은 뉴욕에서 첼로협주곡 b단조 Op.104를 쓰기 시작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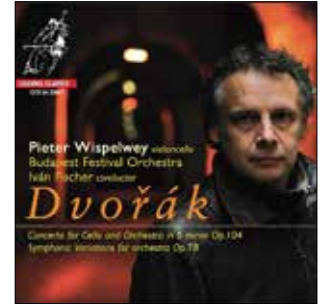
는데, 그때 처형 요세피나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드보르작은 고향에 돌아갈 결심을 굳히고, 첼로협주곡의 작곡을 서둘렀다. 그는 불과 4개월만인 1895년 2월에 첼로협주곡을 완성하였다. 그는 요세피나가 생전에 좋아했던 가곡 ‘홀로 있게 해주세요’의 주제를 2악장에 넣어 그녀를 기렸다. 낭만 시대 첼로협주곡의 최고봉은 이렇게 탄생하였다. 드보르작이 프라하에 돌아온 것은 1895년 4월 27일, 요세피나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27일이었다. 따라서 드보르작은 그녀의 임종을 지켰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첼로협주곡은 한때 사랑했던 처형 요세피나의 죽음에 바친 기념비인 셈이다. 1악장 ‘알레그로’는 클라리넷이 영웅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이를 현악 파트가 받아서 발전시킨다. 호른이 연주하는 두 번째 주제는 전통 5음계로 된 우리 가곡 ‘뱃노래’와 비슷하다. 2악장 ‘아다지오 마 논 트로포’는 클라리넷의 부드러운 주제를 첼로가 이어받아 고귀하게 노래한다. 파국을 알리듯 오케스트라가 통곡하고 울부짖으면, 첼로 솔로가 ‘홀로 있게 해주세요’ 선율을 두 번 변주한다.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는 흑인 영가 선율과 보헤미아 민속춤의 리듬을 활용한 찬란한 피날레다. 마지막 막은 드보르작의 지시대로 ‘점점 여기게’ 사라지다가 다시 ‘점점 세계’ 고양된 뒤 단호하게 마무리한다. 처형 요세피나가 죽은 후 이렇게 수정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곡을 초연했던 첼

리스트 하누스 비한은 기술적인 이유로 피날레 끝부분의 수정을 요구했었지만 드보르작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피날레는 마지막 호흡처럼 디미누엔도로 사라지다가 오케스트라가 크레센도로 이어받아서 폭풍처럼 끝나야 하며, 이 아이디어는 타협할 수 없다.” 요세피나의 임종에 바치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대목이기 때문이었다.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의 감상을 돕기 위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를 미리 들려줄 때, 늘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하나는 마치 모차르트가 언니 알로이지아를 사랑했다가 동생 콘스탄체와 결혼하였듯, 드보르작도 음악가 특유의 넘치는 감수성으로 이해하는 반응과, 드보르작의 이기적인 집착으로 보는 반응으로 대립된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넘어 순전히 인간 그 자체로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을 위하고 추억하는 음악으로 첼로협주곡을 보면, 처연하지만 아름답다. 아다지오의 느린 제2악장은 G장조 3부 형식(A-B-A)이다. 고향의 느린 춤곡(Slavonic Dance)에 덧붙여 ‘신세계(New World)’ 미국이라는 새로운 흥분이 가미된 목관으로 경건한 멜랑콜리한 분위기 속에 첼로의 흐느끼는 정렬이 계속된다(A). 그런데 갑자기 관현악이 “Leave Me Alone”을 노래하다가(B), 다시 주제로 복귀하는데(A), 이 멜랑콜리한 주제에 마치 기도자처럼 3대의 호른으로 코랄을 분

Dvořák: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etc.
Pieter Wispelwey (cello)
Budapest Festival Orchestra, Iván Fischer

Release Date: 15th Oct 2007
Catalogue No: CCSSA25807
Label: Channel
Length: 62 minutes



다. 아마 요세피나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기도의 마음으로 삽입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첼로 솔리스트에게 혼자만이 갖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고 음악은 감미로운 회상을 하면서 마치 지나간 일몰(sunset)처럼 살며시 들어온다. 마지막 제3악장은 알레그로에서 안단테로 다시 알레그로로 빠르기가 변화하고, B단조에서 B장조로 바뀌는 론도(ABA-CDC-AEA) 형식이다. 제1부(ABA)에서는 먼저 A는 격렬한 첼로와 총주 사이의 서로간의 주고받는 토스이고, B는 활달한 춤곡 에피소드(추억)이고, 제2부(CDC)에서는 첼로는 억센 리듬의 C를 다소 부드럽게 하여 D로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는 C에서는 첼로와 클라리넷이 춤춤하게 짜여진다. 마지막 제3부는 다시 돌아오는 론도지만, 제1부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첼로가 아주 작은 소리(ppp)로 A를 연주하다가 최강의 총주로 최강의 충격(maximum impact)을 준다. 관현악은 B로 들어가기로 주저하면서 은은한 갈망을 표현하는 바이올린이 E를 연주하면 이에

첼로가 합세한다. 다시 A로 돌아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고 암시하지만(요세피나가 위독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끝났을 것이다!), 여기에 ‘후기(postlude)’를 붙여 드보르작의 “클라리넷으로 하는 요세피나에 대한 드보르작의 마지막 인사(farewell to Josefina: a clarinet)”가 웅얼거리듯, 앞선 첫 제1악장의 주제를 불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이올린이 “Leave Me Alone”을 연주하고, 뒤이어 시리게 아픈 첼로의 부드러운 연주로 사랑의 추억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추억을 뒤로한 채 비둘기처럼 날갯짓을 하며 서서히 하늘로 날아가는 관현악의 총주는 요세피나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다. 환갑을 넘긴 드보르작은 최후의 걸작인 오페라 ‘루살카’를 쓴 뒤, 1904년 5월 1일 모든 체코인들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3악장의 마지막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의 추억을 뒤로한 채 비둘기처럼 날갯짓하며 서서히 하늘로 오를 것이라. 🕊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흘러가듯 떠돌지만 그럼에도 행복한

정현영 요셉 신부_사목국 상설교회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고” 그 타락한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세 6,11) 결국 하느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폭력의 주체인 “모든 살덩이리들”을 없애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의롭고 흠 없는 사람” 노아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유랑의 달>(流浪の月)은 지난 1월에 개봉한 재일한국인 이상일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는 한 소녀가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네를 타던 소녀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공원의 반대편에는 한 남자가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았던 날이 갑자기 흐려지고 비가 내렸는데, 소녀는 고집스럽게 펼친 책을 접지 않습니다. 그런 소녀에게 남자가 다가와 우산을 받쳐줍니다. 두 사람은

물이 불어 거칠게 흘러가는 개울물 위로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제 성인이 된 소녀(사라사)에게 우산이 인연이 되어 만난 후미와의 기억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의 죽음, 남자친구와 함께 떠나버린 엄마, 그리고 사촌오빠의 반복되는 성추행. 열 살의 사라사에게 버거운 짐이었고 그래서 돌아가기 싫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 사라사를 후미는 이유도 묻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사라사가 납치된 것으로 의심받고 결국에는 아동 유괴와 로리콘(로리타 콤플렉스) 혐의로 후미가 감옥에 가게 됐지만 사라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은 사라사에게 지금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사라사는 후미의 카페에서 예전의 그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책을 읽습니다. 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 후미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사실 이 행동은 열 살의 사라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후미의 우산이 필요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약혼자인 료는 집착이 심한 남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료의 가족도 그의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료의 할머니가 아파서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여동생은 그녀에게 료가 늘 “만일의 때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고 가족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견뎌내고 있는 것은 실제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료가 카페의 공간(후미)까지 들어왔을 때, 사라사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간섭과 구속을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지만 료가 카페로 그녀를 찾아오자 사라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폭력을 휘둘렀을 때 과감하게 그를 떠납니다. 사라사는 후미의 옆집으로 이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료는 멈추지 않고 후미의 옛 사건을 들추어내어 인터넷에 올렸고 후미는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하지 못했으며 사라사도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직장 동료인 카나코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나면서 사라사에게 맡긴 딸 리카가 후미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후미는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사라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후미를 찾아와 리카를 데려가 버립니다.



유랑의 달, 2023
드라마, 미스터리 | 일본 | 151분



사라사는 용감했지만 두 번의 일을 겪은 후 미는 커다란 상처를 입고 괴로워합니다. 사실 후미에게도 드러내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는 정원을 손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몇 번씩이나 보여주었습니다. 환한 태양 아래에 빛나는 정원은 창문 안쪽 마루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후미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후미는 자신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뽑아버린 나무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돌아온 사라사가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후미의 카페를 찾아왔을 때 환한 창문을 배경으로 힘겹게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후미는 무너진 그의 정신만큼이나 초라하고 마른 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별거벗은 몸을 통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있는 사라사에 비해서 (성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자신을 드러냅니다. 너무나도 미안함에 떠나려 했던 사라사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의 무성한 소문으로 인해서 후미가 또다시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흔히 사회적 존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공

동체가 되어야 할 사회가 어떻게 폭력의 장소가 되고 있는지를 창세기는 두 번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그 하나가 노아의 이야기라면,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노아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노아가 폭력의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당신이 하 시려는 일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의논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창세 18,23)

<유랑의 달>에서 사라사 역을 연기한 히로세 스즈는 2015년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아사노 스즈로 나왔었습니다. 15년 전에 집을 떠난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을 찾아가 세 자매는 거기에서 두 번째 부인의 딸 스즈를 만나게 됩니다. 스즈는 세 자매의 어린시절이 담긴 아버지의 사진을 건네주었고, 그들이 같이 올라간 언덕에서 이 마을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마쿠라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즈는 비로소 아버지가 왜 이곳에 정착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미가 그랬던 것처럼 세 자매는 스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스즈는 잘 적응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 속 상처와 아픔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스즈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새어머니는 편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아팠습니다. 스즈가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더 이상 마음 둘 데가 없었던 곳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스즈가 만연인인 사치와 함께 세 자매의 키를 새긴 기둥에 자신의 키를 새겼고 집이라는 공간에 남긴 흔적을 통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처음 만났던 그들은 식당을 하면서 오랜 시간 그 가족들을 지켜봐왔던 나노이마의 장례식을 통해 한 가족이 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언니들이 요만 할 때부터” 그 가족들과 함께 했다고 말했던 그녀는 스즈와 세 자매의 1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네 자매가 함께 바닷가를 걷습니다. 사치는 아버지가 진짜 원망스럽지만 다정한 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스즈(동생)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4분 가까이 길게 찍은 마지막 장면은 이 가족의 앞으로의 시간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0년 지나면 다 할머니가

될 텐데 뭐” “진짜 재미있겠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은 나그네의 모습을 한 천사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거친 성읍의 사내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누군가의 율타리가 되어 준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랑(流浪)할지언정, 그래서 비록 밖에는 거친 파도가 일렁여도 이곳에서만은 안전하다고 느낄 장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함께 하고 싶은 순례지 - 스킴, 사마리아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유다광야를 지나 내륙으로 이동해서 유다 산지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다리, 사이의 땅 (Sacred bridge, between Land)’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길은 놓여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러 문명이 충돌하는 곳이기에 이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들 중 주요한 세 개의 도로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일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잇는 **해변길(Via Maris)**입니다. 거대한 고속도로인 이 길은 나일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남서쪽 지중해변을 따라 올라가다가 ‘아펙’이란 곳에서 내륙으로 들어와 므깃도, 하초르를 지나 다마스쿠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달려가는데 마리, 아카드, 바빌론, 우르 같은 큰 도시를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임금의 큰 길(King's way)**입니다. 이스라엘 홍해의 엘랏을 지나 라빠를 거쳐 올라온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다마스쿠스에서 해변길과 만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중앙 산지 지역에 있는 **성조들의 길**입니다. 가장 남쪽 브에르 쉘바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텔, 실로, 스킴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사악, 야곱 등 성스러운 조상들이 민족을 거느리며 오고갔던 길을 이야기 합니다. 이 길의 대부분은 현재 팔레스타인 정부의 자치지역이고, 반 이스라엘 정서가 가득한 곳이 많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순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단체버스로 이곳을 순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거주할 적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가 평온한 시간을 틈타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아하는 곳들인데 마음 놓고 순례할 수가 없어 안타까움이 매우 큼니다. 아무튼 이 길에 있는 도시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킴으로 가겠습니다.

스킴의 현재 지명은 나블루스입니다. 로마제국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네아폴리스’라

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랍어로 전해지면서 나블루스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쉬킴’이라고 하는데 ‘어깨’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스킴은 에발산과 그리짐산 사이에 있는 도시로 이 두 개의 산이 어깨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짐산과 에발산은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도 유명합니다. (신명 27,12-13) 현재 나블루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도시로 요르단 서안지구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외교부에서 문자가 오는데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출입제한을 일깨우는, 늘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커다란 아랍시장이 있는 사람 사는 곳이며, 아름답기 가로수가 길을 따라 큰 나뭇가지를 드리우며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나름 오래되고 큰 도시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다다른 모레의 참나무(창세 12)가 있는 곳으로 등장하고, 야곱이 파란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러 천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창세 33)으로 나옵니다.





↑ 야곱의 우물 성당 내부



↑ 야곱의 우물 성당 외관



↑ 야곱의 우물

스캠을 포함하여 조금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위로는 갈릴래아 지역, 아래로는 유다지역과 경계를 나누는 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므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여섯 번째 왕 오므리가 세메르에게서 이곳을 살 때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1열왕 16). '스캠'은 낯선 지명인 반면 '사마리아'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요한 4). 사실 이곳에 가는 이유도 이것을 기념해서 지

은 교회를 순례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우물 성당은 스캠 도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샘, 또는 시카르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 위에 세워진 성당으로 현재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많은 순례자 선배님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3세기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 주교님이 쓰신 지명 사전에 '시카르'가 나와 있고, 4세기 보르도의 여정기에도 등장합니다. 385년경 쓰여진 파올라의 순례 여정에서 예로니모 성인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도 야곱의 우물 성당이 언급됩니다. 기원후 560년에 제작

된 마다바 지도에서도 야곱의 우물 성당이 나옵니다.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이곳에 성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시대에도 바실리카가 있었는데, 19세기에는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그리스 정교회가 매입하여 현재 성당을 봉헌하였습니다. 오래된 역사에 비해 성당이 매우 새것처럼 보이는데, 2007년에야 완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콘으로 가득한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우물이 하

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관리인이 친절하게 안내하며 우물의 깊이가 40미터나 된다고 알려주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우물 안에 흘려봅니다. 한참 있다가 쪼르륵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오! 깊네 정말!' 하며 감탄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한번 마셔보라며 우물물을 담은 컵을 건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셨던 예수님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감동의 장소! 감동의 순간! 사진으로 남겨야겠다.' 하며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No Photo, please" 관리인 아저씨가 단칼에 제지합니다. 그리고는 옆의 성물 판



↑ 사마리아 여인 이콘



↑ 사마리아 파스카 제사



↑ 사마리아 파스카

매소로 안내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려진 이콘이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감동이 사라질랑 말랑합니다.

성당 뒤편은 그리스 정교회 성당의 특징답게 정원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 오면서 가져온 것 같은 향아리들이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로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마음이 몽클해집니다. 저는 딱 한 번 개인적으로 간 곳인데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신자들을 언제 한번 모시고 갈 수 없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그

래도 안전이 최고이기에 아직까지 저의 순례 안내기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한 번은 모시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800여 명의 사마리아인들이 있는데, 이곳 그리짐 산에 400여 명 살고 있고 나머지는 텔아비브 근처의 홀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에도 파스카 때 희생 제사를 위해 양을 잡습니다. 이날은 해마다 다른데, 월력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제사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가 지고 7시 정도에 시작하는데 산이기 때문에 날이 추울 수 있으니 두툽한 옷은 필수입니다. 일 년 된 어린 양들을 바치는데 아무런 소리 없이 조용히 죽어가는 양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피를 이마에 바른 후에 양의 내장은 불에 태우고 고기를 장대에 매달아 구워 먹는데, 외부인들에게는 절대 나누어주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나누어 먹습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들만 보이길래 여성들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 남자들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물을 길러 나온 사

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넌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이었는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빠져나오며 여러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언젠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간절한 희망을 담아 기도하며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

정석의 이 도시(9)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땅에 묻힌 애국열사

정석 예로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두 개의 유명한 궁전이 있다. ‘페테르코프’라고 불리는 여름궁전과 ‘에르미타주’ 겨울궁전이다. 여름궁전의 규모는 아주 크다. 100헥타아가 넘는 땅에 대궁전을 비롯한 30여 개 건물들이 서있고, 대궁전 위와 아래쪽에 커다란 두 정원이 있다. 여름궁전은 러시아 황제들이 여름철에 머물던 별궁이다.

여름궁전은 1714년부터 1723년까지 지어졌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의 폭격으로 크게 훼손되었으나 종전 후 소비에트 정부가 30년 이상 복원에 노력을 기울였고, 그 덕분에 199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오밀조밀했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3국을 여행하다가 러시아 땅에 들어오니 스케일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대궁전 밑에 펼쳐진 아래정원은 가운데 수로를 중심으로 좌우대칭 형태여서 마치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여름궁전의 또 하나의 매력은 폭포와 분수다. 60여 곳 분수와 200여 개에 이르는 황금빛 조각상들, 그리고 낮 시간에 하늘 높이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를 보는 감동이 대단하다. 대궁전 아래 연못 한 가운데에는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는 모습의 조각상이 있고, 사자의 입에서 20미터 이상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단연 압권이다.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 만든 조각상이라는데, 자신을 삼손에 비유하고 사자 문양 국장을 쓰는 스웨덴을 사자에 비유한 상징 기념물이라고 한다.

여름궁전을 방문했던 날은 날씨가 아주 좋았다.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 거대한 궁전이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났다. 정원도 아름다웠고 궁전의 내부도 화려한 장식들이 눈길을 붙잡았다. 과거 궁궐 생활을 느끼게 해주는 소품들이 방마다 전시되어 있었다.

표트르 대제와 스웨덴의 전투를 기념해 만든 삼손과 사자 조각상 때문이었는지 그날 밤 잠을 자다 전장에 나가는 꿈을 꾸었고 새벽에는



↑ 페테르코프 여름궁전



↑ 페테르코프 여름궁전



↑ 사자의 입을 찢는 삼손 조각상



↑ 여름궁전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



↑ 예카테리나 알렉산드리아 성당 내부



↑ 예카테리나 알렉산드리아 성당의 훼손된 성물



↑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방요역 이범진 공사 순국비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다. 나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전투 개요는 이러했다.

“2018년 8월 5일 일요일 새벽 5시, 적의 수차례 침공을 받고 기상. 새벽 5시 10분 적 발견. 1차 공격 실패. 5시 30분 적 발견. 2차 공격 실패. 아침 식사 후 8시 10분 다시 적 발견. 3차 공격 성공. 발트3국에서 한 방울도 안 뺏긴 귀한 피를 빨아간 러시아의 ‘나쁜느무모기스키’를 섬멸하던 순간, 포연 자욱한 상트에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치열했던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한 뒤, 주일 오전 예카테리나 알렉산드리아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드렸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가톨릭교회 예카테리나 성당에서는 매 주일 오전 9시반에 영어 미사가 봉헌된다. 영어 미사 통상문과 성가책을 보면서 주일미사를 드린 게 아주 오랜만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발타살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셨고, 한국인과 필리핀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신자들이 다함께 미사에 참례하였다. 오랜 세월 박해와 핍박을 받은 흔적이 성당 곳곳에 보였다. 성상이 뜯겨져 간간 벽을 바라볼 때에는 마음이 아렸다. 훼손된 성당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고치고 되살려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중이라고 들었다.

이튿날 아침엔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에 있는 북방요역을 방문했다. 순국열사 이범진 전 러시아 공사의 묘와 기념비를 참배하기 위해서였다. 이범진 공사는 1852년(철종3년)에 태어나 1879년(고종16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에 올랐고, 1897년에 주미공사가 되었다. 1900년에는 주러시아공사가 되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공사를 겸임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뒤 소환에 불응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체류하면서 국권회복에 힘썼다.

1907년 고종황제가 파견한 이준, 이상설 밀사

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왔을 때 아들 이위종을 보내 밀사들이 헤이그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도왔다. 1908년 연해주 의병 조직을 지원하는 등 나라를 되찾는데 힘썼으나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었고, 이국땅에서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고종황제에게 보낸 유서에서 이범진 공사는 “구적에게 보복을 할 수도 없고 자결 외에 취할 수단이 없다.”라고 썼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아직 타국 땅에 묻혀 계신 순국선열의 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님 덕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요한 세례자의 부모인 성 즈카르야와 엘리사벳

윤인복 소화테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마리아와 사촌 간인 성녀 엘리사벳(St. Elisabeth, 1세기경)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그녀도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된다. 루카 복음서에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았다고 전한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사제이던 즈카르야와 결혼했는데,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그

런데 『황금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즈카르야에게 천사가 나타나 요한이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런데 즈카르야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며 하느님 앞에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천사의 말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 의심으로 그는 갑자기 병



로히르 반 데르 바이덴, <성 요한 세례자의 세족 제대화>, 1454년경, 베를린 국립미술관



로히르 반 데르 바이덴,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1435년, 조형미술관, 라이프치히

여리가 되었다. 마침내 엘리사벳은 당시 우리의 상식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으나 임신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때 사촌인 마리아가 그녀를 찾아왔다.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란 말에 “예”하고 대답은 했지만,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혼례를 하지 않은 마리아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진짜로 아기를 가졌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함께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엘리사벳을 찾은 것이다.

루카복음서는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루카 1, 39)고 전한다. 플랑드르 르네상스 거장인 로히르 반 데르 바이덴(Rogier van der Weyden, 1399년경~1464년)은 성경에 원전을 두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림의 배경을 자신이 살던 시대의 한가로운 시골 마을의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세심한 세부 묘사로 북유럽의 사실적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저물녘 은은한 노란빛의 뭉게구름이 어우러진 하늘, 멀리 희미한 산, 들판에 교회와, 백마를 타고 가는 사람, 잘 고른 사각 형태의 저수지에서 노닐고 있는 백조 등은 그야말로 시골의 평화로움이 가득 느껴지는 풍경이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이다. 그림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즉 구원자 그리스도를 낳을 여인과 예언자 세례자 요한을 낳게 될 여인의 만남은, 종종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함께 등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둘만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잉태한 성녀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히브리어로 ‘하느님은 맹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마리아와 사촌 간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갖게 된다. 당시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 그렇지만, 구세주 예수보다 먼저 태어나 그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엘리사벳은 그 사람을 낳을 여인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림에서 결혼한 여자로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집 바깥까지 마중 나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그녀는 손으로 마리아의 부른 배를 만지며 주님의 어머니 이심을 깨닫고, 바로 자신의 배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반가운 마음에 뛰어노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엘리사벳은 축복과 환영의 인사를

나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루카 1, 42). 비록 마리아보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지만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녀에게 허리를 굽혀 존중의 태도를 보인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 예수와 세례자 요한의 만남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게 되고, 노년기에 접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사실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두 여인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함께 겪으며 서로를 가없이 여기고 있는 듯하다. 화가는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루카 1, 41)라는 성경의 내용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서로의 배를 만지는 모습을 선택한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마주치자 각자의 손으로 서로의 부른 배를 확인하고 있다.

두 여인의 배를 서로 만지며 태 안의 아기를 확인하는 장면 외에 그들의 복부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15세기에 궁정화가가 그린 작품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복부에 금장식된 메달 안에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의 태아 모양이 그려져 있다. 두 여인의 자궁 안에 자라고 있는 두 태아 모습이 묘사돼 있다. 이



궁정학교 화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15세기, 라사로 칼디아노 미술관, 마드리드

러한 도상은 그리스도의 육화를 강조한 표현으로 비잔틴 미술에서 그 기원을 가진다. 왼쪽에 아기 예수님은 오른손을 들어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요한 세례자를 향해 축복하고 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단순히 둘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의 만남으로 연결된다. 두 아기는 몇 개월 사이로 태어나 어린 시절도 함께 보내게 되고 후일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올 것을 예고하는 예언자가 된다. 따라서 많은 화가가 성모자상을 그린 그림 속에 요한 세례자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키거나,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주제를 많이 다루었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성 즈카르야

엘리사벳 뒤쪽 고딕 양식의 커다란 집 앞에서는 엘리사벳의 남편인 즈카르야가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예루살렘 사제이던 즈카르야는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며 하느님 앞에 떳떳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강아지는 즈카르야의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을 상징한다. 화가는 즈카르야가 존경받는 사제로서 그 부부에게 적합한 집을 잘 표현하고 있다.

즈카르야(St. Zachary, 1세기경)는 유대 임금 헤로데 시대의 제사장였다. 즈카르야는 이스라엘의 스물네 사제단 가운데 아비아 조인 여덟 번째 조에 속했으며, 이스라엘 사제 계층의 선조인 아론의 후손이 되는 엘리사벳과 결혼했다. 이 두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의롭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다. 이미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다.

당시 성전에서 이루어진 희생 제사는 사제들끼리 제비를 뽑아 그 수행자가 결정하곤 했다. 어느날 즈카르야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솥물을 가져다 향로 위에 불을 지핀 후 분향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바치는 징표로서 하느님께 향 연기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즈카르야가 분향하고 있을 때, 그의 앞에 갑자기 하느님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그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몹시 놀랐다. 천사는 그에게 믿기 어려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천사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루카 1, 15)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을 예고하였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꽤 나이가 많았던 즈카르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의심한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

라는 소식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며 이미 나이까지 많은 그의 아내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즈카르야는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까.”(1, 18) 하고 의심했다. 그의 불신에 화가난 천사는 즈카르야를 병어리로 만들어 버렸는데, 갑자기 병어리가 되어 성소 밖으로 나가자 밖에 모여 기도하던 백성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다. 아들이 태어난 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 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다. 바로 “그때에 즈카르야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1, 64) 이후 아기의 아버지 즈카르야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예언한 말은 ‘베네딕투스-Benedictus’(즈카르야의 노래라고도 함)라 불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

요한 세례자의 부모인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는 루카 복음서에서 일종의 머리말 역할을 한다. 복음서의 일화처럼 요한의 일생은 작품으로 많이 재현되었다. 그 가운데 요한의 아버지 즈카르야에 관해서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과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장면이 주로 그려진다.

도미니코회 수사이자 화가인 베아토 안젤리코(Beato Angelico, 1395경-1455)는 요한



베아토 안젤리코, <요한 세례자의 이름>, 1428~30년경. 상 마르코 박물관, 피렌체

이 태어난 후 천사의 말에 따라 아들의 이름을 쓰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정원에는 머리에 긴 수건을 쓴 엘리사벳과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갓 태어난 요한은 젊은 여인의 품에 안겨있다. 나이가 든 즈카르야는 정원 벽 난간에 앉아 글 쓰는 판에 아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 모인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자,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아기의 아버지 즈카르야 역시 천사가 고지한 대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썼다. 화가 안젤리코는 원근법을 비롯한 입체감으로 공간의 깊이를 확고히 구축하며, 정교한 형태 표현과 채색으로 이야기를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안젤리코의 밝은 색채는 마치 하느님의 자비로운 빛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예언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듯하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요한 6, 38)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직장공동체 견진교리반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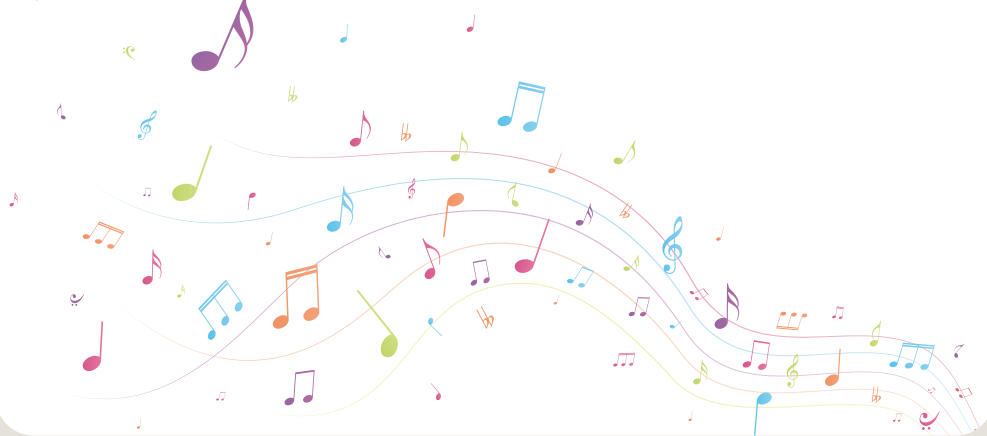
바쁜 일상과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과 직장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견진교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견진 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공동체는 직장사목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기간 : 5. 22(월) ~ 6. 26(월), 매주 월 20:00~21:00 (총 5회)
- 교리장소 : 가톨릭회관 205-3호
- 교육비 : 30,000원 (교재대금, 사진비, 장소사용료, 꽃사지 등)
- 접수마감 : 5. 10(수) 17:00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견진성사 : 2022. 7. 2(주일), 13:30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연습/미사: 매주(금) 19:30/둘째(금) 20:00,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단장 010-5760-6638



5월에는 우리농 선물하세요



가톨릭회관 1층 명동나눔터에서 장보면 서울대학교 직원 회원은 추가할인!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공급일기준 5월 1일 ~ 5월 14일



화장품 22종 회원 특별 할인!

우리농 회원 특별 할인가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해요~

너에게, 파운드 세트

소울베이커리, 560g
14,900 → 14,300원

우리밀 초코파이 세트

소울베이커리, 480g (6개입)
14,600 → 12,600원



고마운 분에게!



짜먹는배·도라지청세트

10g*15포*2박스
25,800 → 23,300원

가톨릭 우리농 생산지이야기 할인!

*공급일기준 5월 1일 ~ 5월 31일

떡갈비, 매운떡갈비

광주대학교, 냉동, 각 300g
6,100 → 5,500원

표고버섯 떡갈비

광주대학교, 냉동, 300g
6,700 → 6,000원

동그랑땡

광주대학교, 냉동, 500g
10,700 → 9,600원



몸보신이 필요할 때!

*5월 택배 예약시 할인,
5/31(수) 오전 10시 마지막 예약마감

전복(왕특/특)

1kg (7-8미 / 8-9미)
88,400 → 58,500원
81,900 → 55,900원



사랑하는 아이에게!

*공급일기준 5월 1일 ~ 5월 14일



아람드리 (3종)

138ml
1,000 → 800원



우리밀 과자류 특별 할인!

감자래요, 달콤보라구마, 옥송이, 참깨소분, 우리밀크래커타임
* 최소 10%!
할인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생명농산물로 만든 안전한 가공식품,
모바일에서도 만나보세요♥



우리농장보기(모바일) 우리농 법인 홈페이지



@seoulwurinong



facebook.com/wrn.kr



(사)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wrn.kr (우리농 장보기)



Ave Maria [ah-vey muh-ree-uh]

(italics) the first two words of the Latin version of a prayer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based on the salutation of the angel Gabriel to the Virgin Mary and the words of Elizabeth to her.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